

IT 중소·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방안

1. 현황

●● 외환위기 이후 고용창출, 경기회복을 위해 IT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으로 기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.

기업체 수(개)	'98년	'00년	'02년
	10,040	13,629	20,773

- IT중소·벤처기업은 생산·수출 증대로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다.

	'98년	'00년	'02년
생산(조원)	18.9	39	49
수출(억불)	41	137	126

●● 그러나 한편으로 IT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은 소규모 창업기업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되어 동종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었다.

(정보보호분야에 200여개, xDSL 장비분야에 50여개, 생체인식분야에 40여개, 웹호스팅분야에 1,500여개 업체 난립)

- 중소 벤처기업의 수익성 감소 및 인력 이탈로 IT중소·벤처기업의 기반이 악화 되었으며

	'00년	'01년	'02년
영업이익률 ¹⁾ (%)	9.5	3.0	3.1
기업 ²⁾ 당 고용인력(명)	19	15	13

- 국내외 IT 경기 및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.

벤처캐피탈 신규투자(조원)	'00년	'01년	'02년
	2.0	0.9	0.6

1) 코스닥등록 벤처기업

2) IT중소·벤처기업

2. 추진방향

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표적 IT 중소 벤처기업 육성 (2007년 :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불 달성)

- ● 동종업종간 M&A활성화를 통해 IT 중소·벤처기업 기술·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.

- 기존 IT전문투자조합의 규약 개정과 신규 IT M&A 전용펀드 조성을 통해 IT 중소·벤처기업의 M&A 활성화

- ● 창업지원보다는 유망기업의 건실한 성장지원을 강화한다.

- 유망기업에 대한 R&D 출연금 확대 및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,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지원, 기업간 협업을 촉진한다.

또한 기업간 공동구매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고객관리를 위한 공동 콜센터 구축으로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.

3. 세부추진방안

1) IT중소·벤처기업 M&A 활성화

- ● 기존 IT 전문투자조합의 M&A 투자를 유도한다.

-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촉진할 목적의 현행 IT 전문투자 조합의 투자제한을 완화하여 M&A 투자 활성화를 유도 (전문투자조합은 총 39개 조합에 3,018억원의 투자재원 보유(2003.3 월말 현재))

〈IT 전문투자조합 조합규약 개선방안〉

구 분	현 행	개 선 방 향
구주인수	구주인수 금지 (신규발행 주식, 전환사채 등에만 투자 가능)	M&A목적의 구주취득을 제한적 (총 결성액의 50%미만)으로 허용
창업초기기업 투자의무비율	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에 40% 이상 투자	폐 지
투자대상 기업업력	창업 7년 이내 기업에만 투자 가능	창업후 7년 이내 기업에 50% 이상 투자
투자대상기업	상장(등록) 기업투자금지	결성액의 일정범위(조합원간협의결정)내 코스닥등록기업 신주투자 허용
조합존속기간	5년	7년 이상 (결성 후 2년미만 조합대상)

* 조합규약 개정은 조합원 2/3이상의 동의를 거쳐 확정됨

- IT M&A 전용펀드를 조성한다.
 - 규모: 500억원 이상(정부-민간 매칭, 정부 50%이상)
 - 투자제한 완화: 구주인수, 코스닥 등록기업 투자, 경영권 인수 목적 투자 허용
 - 존속기간: 5년 이상(충분한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하도록 장기 운영)
 - 조성시기: 금년 하반기중

<투 자 예 시>

- A기업이 B기업을 인수·합병 추진시 A기업의 신주인수 형태로 투자
- A기업이 B기업을 인수 추진시 B기업 구주를 A기업과 공동취득
- 펀드가 한 기업을 인수(경영권인수)하여 기업가치 제고 후 다른 기업과 M&A 추진

2)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- 유망기업에 대한 R&D를 집중 지원한다.
 - 금년 하반기 중 기술개발 출연자금(산업경쟁력강화사업)에 120억원을 추가배정
('03년 기술개발자금: 380억원 → 500억원)
 - 다수기업·소형과제 분산지원에서 유망기업·대형과제 지원 위주로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특허출원·등록비용 지원을 확대한다.
(현행 출원·등록비용의 50%지원에서 100%지원으로 확대)
 - 우수신기술지정·지원사업은 과제당 출연한도를 S/W 1억원, H/W 1.5억원에서 각각 2억원, 3억원으로 상향 조정('03.6월 기시행)하고, 물적담보 위주의 자금용자 지원은 축소하고 담보부담이 없는 기술담보방식의 대출지원을 확대
('03. 6월 기시행; 기술담보대출지원액: '02년 700억원 '03년 2,000억원)
- 유망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.
 - IT 전문투자조합을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장기·후속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합규약 개정을 유도
 - 조합 존속기간 연장(5 → 7년), 투자대상기업 업력제한 완화,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
 - 통신사업자의 Korea IT Fund (KIF, 금년부터 3개년간 매년1,000 억원씩 3,000억원 조성)를 통해 지능형 로봇, Post-PC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 유도
 - 금년 중 150~ 250억원 규모의 자(子)펀드를 신규 결성(5개 내외)하고 기결성된 디지털영상 콘텐츠 전문투자조합에 추가출자(150억원)

- 유망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.
 - IT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마케팅, 재무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('03년 컨설팅 지원 : 5억원 200억원)
 - 우수 컨설턴트 Pool을 한국 IT중소벤처기업연합회(PICCA)에 구성하여 상시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하고, 기술력보유 초기기업과 성장기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분석·진단 종합컨설팅 중점 지원(기업분석·진단 : 최대 500만원, 종합컨설팅 : 최대 2,000만원)한다.

- 해외진출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.
 - 해외 IT지원센터(iPark),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(ICA: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)를 통한 마케팅 및 해외투자유치 지원
 - '03년도 iPark을 통해 미국, 중국 등에 650개의 마켓채널 구축 추진하고 ICA에 IT 해외진출 종합정보시스템 및 IT 수출상담센터 구축·운영 지원
 -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
 - 해외진출 유망기업에게 집중 투자하는 총 1억불 규모의 KGIF(Korea Global IT Fund) 조성('03년도 현재 3,331만불 조성)

- 현행 창업지원사업을 정비한다.
 - 창업이전 초기단계의 기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전시성 창업경진대회 지원은 '04년부터 폐지한다.

3) 기업간 협업촉진

-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한다.
 - '04년 IT중소벤처기업의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가상장터(e-Marketplace) 구축 및 운영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.
 - 중소기업간 공동구매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구매 품목선정, 부품 표준화, 부품 관련 DB 구축 등 유도(기획예산처와 2004년 예산 협의중)

- 공동콜센터 구축을 지원한다.
 - '04년 중소기업이 콜센터의 인프라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외 공동 콜센터 구축 지원 추진한다.
 - 특히 고객관리의 비용부담이 큰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국 iPark에 공동 콜센터 설치 추진(기획예산처와 2004년 예산 협의중)